



가톨릭 안동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통합 생태적 교회를 향하여
실천사항- 생명의 밥상을 차립시다.

제336호 2025년 6월 8일(다해) 성령 강림 대축일



<분회공동작업>

"나의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요한 15,1)

<안동 가톨릭농민회의 어제와 오늘>: 가은한민음 분회

제1독서 사도행전 2,1-11

화답송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손상오 신부 곡



제2독서 코린토 1서 12,3㉔-7.12-13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음 요한 20,19-23

영성체송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홍보·전산
오픈카톡

‘불꽃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서문동 본당 주임
임준기 다미아노 신부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 은혜로운 시간이 되셨습니까? 오늘은 성령강림 대축일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에 따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마르코의 다락방에 성모님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에서 오는 힘(능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루카 24,49)

오순절이 되었을 때 사도들은 경이로움에 사로잡히는 하느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곧 성령 체험입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사도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사도 2,1-4)

약속을 믿은 제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느님께 속한 기운’, ‘하느님의 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땅의 어떤 기운도 막을 수 없는 하늘의 거룩한 기운, 땅의 능력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이신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령은 하느님의 사랑이며 예수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성령께서 ‘불꽃 모양의 혀’ 모습으로 (세례 때는 비둘기의 모습) 내려오셨습니다. 혀는 말을 의미합니다. 혀가 불꽃 모양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불타는 말, 즉 가슴을 뜨겁게 불태우는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소리가 아닌 하느님의 소리로 듣는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도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루카 24,32) 제자들의 마음을 타오르게 했던 그 말씀을, 이제 우리는 성령 하느님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은 세 치 혀에서 나오지만 어떤 ‘말’은 칼이 되어 사람을 죽이고, 분열과 단절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말’은 생명의 불씨가 되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세례를 통해 성령을 받은 신자들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뜨거운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체험은 나와 세상을 태워 변화시키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삼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통한 증언, 곧 내가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거룩한 성전, 성령의 거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뜨거운 말씀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새로운 성령 체험을 통하여 ‘불길처럼 타오르는 말씀’,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씀’을 새롭게 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 생애를 사로잡고 변화시켜 줄 한마디 말씀이 오늘 또다시 불꽃처럼 하늘에서 내리기를 미사 중에 청해야 합니다. 아멘.

가은 한민음 분회

표지 사진 설명



1995년 창립한 가은 한민음 분회는 회원들이 문경시 가은읍 일대에 산재해 있으며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월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1997년부터 우렁이농법으로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우렁이농법은 병해충이나 잡초를 없애는데 탁월하고 토양 및 수질 오염 방지와 생태계보호에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직접 퇴비를 만들어 땅과 환경을 살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농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분회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공동 경작한 옥수수를 삶아 교구 농민 주일에 가은 회원 전체와 나눠 먹었던 일, 농민 주일 장기 자랑에 참여해 상 받았던 일, 회원들과 냇가에서 천렵했던 일, 지역의 장애아동들과 나들이 갔던 일, 대학생들과의 농활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소소한 생활 속의 일상을 나누면서 결속력이 높아져, 서로 격려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은한민음분회원(7가구) : 조창환(분회장)·소은정, 이은희(총무)·여훈구, 장기택·박춘순, 남무희·이재연, 황대섭·손미옥, 이동훈·조미숙, 이해완·오경순

※ 2025년 「가톨릭안동」 1면에는 <찬미반으로서 7년 여정- 실천사항: 생명의 밥상을 차립시다>에 따라 가톨릭 농민회의 주요 사건과 생명 농업의 생산(분회)-판매(우리농 매장)-소비(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다룹니다. <안동가톨릭농민회>에서 제공해 준 사진과 자료를 토대로 목상글을 담습니다.



노래산 성지 -온몸으로 황소바람을 맞으며-

정상동 본당 송규흠 아오스딩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를 떠나 산속에 숨어 살면서 열네 번 째 맞는 부활절이었다. 그들은 온마음으로 기도하며 미사를 드리고 있었다.

명예와 재산, 자신의 안위를 다 버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새기며, 세상의 잣대를 피해 깊은 산골에 모여 화전을 일구며 하느님이 맺어주신 형제 자매로 함께 살았다. 언제 잡혀갈지 모를 일이라 하느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노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교구 성지 소개글에서 본 주소를 찍었다. '청송군 안덕면 노래리 615'.

금세 비가 내릴 듯 흐린 날이다. 안동에서 길안을 지나 청송으로 가는 지방도로에 접어든다. 파천까지 가는 내내 지난 산불로 양옆의 산들이 온통 검다. 청송 읍내가 가까울 때 짙은 안개는 양수 발전소 쪽으로 길을 안내한다. 청송 양수 발전소를 오른쪽에 두고 흐끄불한 작은 재를 넘어 6킬로 짙 가니 좁은 산길로 접어든다. 10킬로 정도가 더 남았는데 계곡을 따라 산속으로 들어간다. 기어이 비가 내린다. 산과 산 사이 계곡 끝에는 잘 꾸며진 동네가 보인다. 신흥종교가 이 일대를 점령했다더니 좁은 골짜기에 공동 주택도 보이고 회관도 보이고 공장도 보이고 잘 꾸며진 마켓도 있었다.

목적지가 3.5킬로 남았다. 거기서 부터는 완전 가파른 산길이다. 자동차를 만나면 피할 곳도 없는 좁은 길이다. 오르는 길이 참 길다. 여지껏 다녀본 교우촌과 달리 가는 내내 교우촌을 알리는 표지판이 하나도 없다.



마지막 오르막 고개를 돌아 목적지 산 꼭대기다. 너른 평지가 갑자기 나타난다. 마치 분화구처럼 보인다. 산 아래 계곡 마을에서 보았던 단층 공동 주택이 나란히 여러 집이다. 교회인듯한 건물도 비껴 서 있고 비닐 깔린 밭도 보인다. 신흥종교가 집단으로 거주하던 곳이다. 그런데 사람이 없다. 철거를 하려는지 굴삭기 한대가 덩그러니 마을 가운데 앉아있다.

1801년 신유박해 후에 충청도와 전라도, 상주에서 온 신자들이 숨어 살던 교우촌이다. 길도 없는 깊은 산에서 터전을 일구는 일은 험난했다. 그들은 이곳에서 산꼭대기 황소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기도하고, 관솔 불로 천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다져나갔다.

그러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들의 흔적은 아무 것도 없다.



산 공제선을 따라 여러 개의 풍력발전 바람개비가 세월처럼 돌아간다. 발아래 안개가 그들의 흔적처럼 자욱하다. 병풍처럼 둘러 서 있는 봉우리들만 오랜 세월의 기억을 품고 있을 뿐, 구름도 가고 바람도 가고 사람들도 가고 없지만, 시루 속에서 자라는 나물 같은 그들의 믿음이 온몸을 적신다. 바람개비의 잉잉거리는 소리에 몸을 낮추던 빗소리가 이제야 들린다.

미사를 드리는 중에 포졸들이 들이닥친다. 30여 호 이곳에 살던 신자들은 경주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한다. 끝내 7명은 대구 관덕정에서 참수되었다. 단지 천주교에 미혹되어 마음을 돌리지 않았던 것이 이들이 참수당한 이유였다. 이들은 모두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시복되었다.

돌아오는 길에, 가로수로 서 있던 불에 그을린 은행나무가 검은 가지 끝에 갓 틔운 푸른 잎을 몇 가닥 달고 있었다.



교구장 동정



6월 9일(월) 주교영성모임(~10)
6월 13일(금) 사회복지 종사자
연수 2차
6월 15일(일)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시성
기원 미사

축하합니다

영명축일

6월 9일(월) 장현준 에프렘 신부
6월 13일(금) 김지성 안토니오 신부

교 구

희망의 순례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시성 기원 미사

일 시: 6. 15(주일) 15:00
장 소: 진안리 성지(선종지)
참가 대상자: 서한 필사자, 제단체

사목국 공소탐방

일 시: 6. 8(주일) 10:00
장 소: 점촌동 본당 산북공소

6월 열린성경 강좌

일 시: 6. 9(월) 19:30~ 21:30
장 소: 갈전 마티아 본당
준비물: 성경, 필기구, 참가비 5,000원

각종에 사제밴드와 함께하는 떼제기도모임

6. 9(월) 19:30 점촌동 본당(문경지구)
6. 22(주일) 17:00 휴천동 본당(북부지구)
대 상: 누구나

평화방송 라디오 청취안내

방송일시: 6. 11(수) 13:00~ 14:00
출 연: 마원성지 정도영 베드로 신부
방송내용: 깔레 신부와 복자 박상근의
숨결을 따라
*유튜브 'CPBC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시청가능합니다.

수취페 도미네와 함께하는 성시간

일 시: 6. 13(금) 20:00
장 소: 예천 본당

제 단 체

6월 꾸르실료 월례미사

일 시: 6. 16(월) 20:00
장 소: 송현동 본당

전례꽃꽂이 연구회 제2기 수료작품전

기 간: 6. 20(금) 11:00~ 6. 21(토) 15:00
개회식: 6. 20(금) 11:00
장 소: 교구청 강당
주 최: 전례꽃꽂이 연구회

6월 교구 성령 색신 기도회

일 시: 6. 29(주일) 16:00
장 소: 강구 본당
기 도: 성령의 위로와 희망의 기도

수 도 회 · 피 정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고전 읽기

제 목: 토머스 머튼의 시간(토머스 머튼 지음)
일 시: 5. 31~ 7. 5(매주 토요일 15:30~ 17:00)
장 소: 안동 바오로딸 서원
회 비: 10,000원(책은 본인이 구입)
문 의: 010-2894-7020

성령 강림 치유 대피정

일 시: 6. 13(금) 18:00~ 6. 14(토) 17:30
장 사: 강우일 베드로 주교님 (미사)
정월기 프란치스코 신부, 김성기
안드레아 신부, 김기화 도미니코
신부, 홍성남 마태오 신부, 양창우
요셉 신부

장 소: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숙식무료)
문 의: 010-3310-8826/ 02-874-6346

젊은이 기도 모임 "마음쓰다"

일 시: 매월 1, 3주 화요일 19:30
기 간: 6. 17(화)~ 11. 8(화), 총 10회
대 상: 35세 이하 미혼 청년
참가비: 25,000원
장 소: 서울 길음동 본원(선한목자예수수회)
문의 및 신청: 010-4882-9674

몸기도 With 성경통독 7박8일 피정

일 시: 6. 23(월) 11:00~ 30(월) 13:00
장 소: 그리스도의 교육수녀회(안동본원)
문 의: 010-3360-9817 문보나 수녀

예수회센터 여름방학 특강/7월 개강, 각 6주

월요무료피정: 의식성찰, 이근상 신부
근/현대 문화유산: 교회사, 이진현 신부
구약성경 아카데미:
사무엘기, 열왕기, 주원준 박사
예수의 윤리 이야기:
덕, 평화, 공동체, 박상훈 신부
인간과 창조: 바오로의 관점, 김민철 신부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
신 청: 02-3276-7733, center.jesuit.kr

포콜라레 여름 마리아폴리

기 간: 7. 18(금)~ 20(주일)
장 소: 경주 코모도호텔
주 제: 하느님 방식으로 다가가기
신청 기간: 6. 16(월) 12:00~ 20(금) 12:00
신 청: <http://www.focolare.or.kr>

상주 가르멜 여자수도원 성소모임

고독과 침묵 안에서 기도의 사도직에
부름받은, 봉쇄 관상 수도생활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을 초대합니다.
장 소: 상주시 내서면 우서로 80-21
연락처: 010-3502-0507 (08:00~ 17:00)

교 육

가톨릭상지대학교

실버헬스케어(노인 인지활동) 무료 교육

일 정: 7. 12(토) 26(토) (총 2일 12시간)
시 간: 09:00~ 15:30
내 용: 노인 인지의 이해 및 평가,
노인 인지 운동활동 프로그램 등
대 상: 고용보험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7